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August_ Vol.163





Cover story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삼성KPMG!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10가지 좌우명 가운데 하나로 그녀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일이 아니라 행복이다.’고 강조합니다.

삼성KPMG 역시 임직원의 ‘행복’에 가치를 두고,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행복한 일터’를 일궈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는 삼성KPMG는 임직원 모두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법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재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곳, 삼성KPMG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 갑시다.

Contents

August 2016 Vol.163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Global Frontier**
글로벌 CEO가 내다본 세계 경제
- 06 **Team Spirit**
삼성KPMG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
- 08 **Client+**
동아오츠카
- 10 **Market Reader**
브렉시트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
- 12 **Excellence Report**
AUDIT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 16 **FY16 Strategy I**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삼성KPMG
- 20 **Talk! 연결고리**
삼성KPMG 외국인 직원을 만나다
- 22 **이색삼성★**
자전거 라이더 JP본부 이지형 S.Senior
- 24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26 **가자 세계로!**
유럽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동유럽의 보석, 폴란드
- 28 **Samjong News**
'2016 삼성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 개최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년 후 세계는? 글로벌 CEO가 내다본 세계 경제

KPMG 인터내셔널은 'Now or Never: 2016 Global CEO Outlook'을 발간해 글로벌 CEO들이 현재 직면한 위험과 변화에 어떤 전략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봤다. 또, 조사 결과에 대한 KPMG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과연 글로벌 CEO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본다.

| 글로벌 CEO 72% “향후 3년이 지난 50년보다 더 중요”

최근 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적 변동에 따라 우리는 매일 각양각색의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파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요인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며, 그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PMG 인터내셔널은 'Now or Never: 2016 Global CEO Outlook'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CEO가 전망한 향후 3년간의 세계 경제 및 비즈니스 트렌드를 짚어봤다. 이번 설문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의 자동차, 은행, 보험, 제조업, 통신, 에너지 등 11개의 핵심산업 분야에 속한 1,300여 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0%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며, 5억 달러 이하의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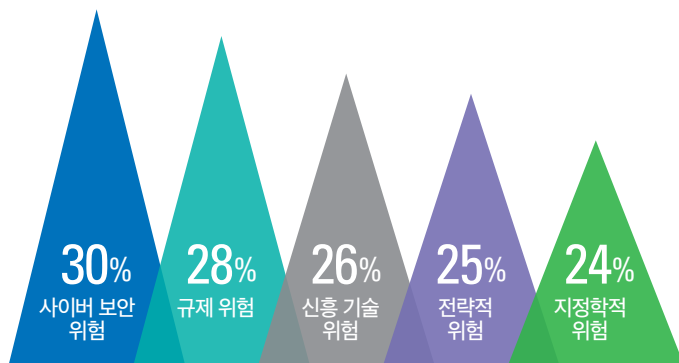
글로벌 CEO들은 ‘지금이 변화의 유일한 기회’라고 말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CEO의 72%는 기업에 있어서 지금부터의 3년이 과거 50년에 비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성장 전망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자신이 속한 기업의 성장을 확신했고, 그들의 국가(86%)와 소속 산업(85%), 글로벌 경제(80%)의 성장에 대해서도 높은 확신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반은 향후 3년간 그들 기업의 연간 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KPMG 인터내셔널의 부회장 존 스캇(John Scott)은 “향후 3년은 경제적, 지정학적, 규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라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변화를 통해 혁신을 이룬 기업들은 향후 더욱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 글로벌 CEO들이 3년 후 가장 우려하는 것, '사이버 보안'

글로벌 CEO들은 기존 비즈니스 위험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당면할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현 문제에 대해 고객의 충성도(88%)를 걱정했고,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제 영향(88%)과 기업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고민(86%)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5%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할 시장의 신규 진입자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KPMG 인터내셔널 회장 존 비마이어(John Veihmeyer)는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답한 CEO들은 기업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조직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등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무엇이 기업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사이버 리스크(30%)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5위로 조사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이다. CEO들은 새로운 시대의 진입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CEO 중 85%가 자동화 프로세스에 인공지능과 인지과정을 결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72%는 그들의 기업이 사이버 리스크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보다 높은 수준으로 CEO들은 주로 “조직이 할 수 있는 한 사이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완벽하게 사이버 문제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상위 5개)



Source: 2016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 향후 3년간 최대 핵심 전략은 ‘혁신 조성’

변화의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41%의 CEO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회사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견해를 지닌 CEO의 비율이 2015년에는 29% 수준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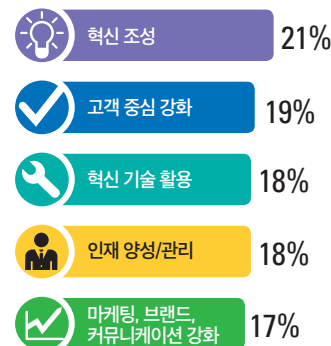
변화 능력은 결과와 직결된다. 지난 3년간 10% 이상 매출이 증대한 기업 중 27%는 ‘혁신의 조성’을 최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택한 반면, 매출이 10%에 못 미치는 기업들 중에서 ‘혁신의 조성’을 택한 기업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응답자 21%가 ‘혁신의 조성’을 최대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다. 또한 응답자 18%는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대한 핵심 요소로 새로운 기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CEO들이 향후 3년간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25%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22%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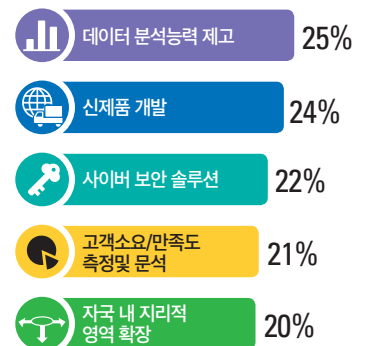
또한, 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함께 역량 개발을 계획하는 글로벌 CEO도 증가했다. 향후 3년간 조직의 인력을 증대할 계획인 CEO는 지난해 조사결과 78%였던 반면, 올해는 9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용 계획을 갖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인해 변화의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 향후 3년간 Top 5 전략 우선순위



■ 향후 3년간 Top 5 전략 투자부분



Source: 2016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특히, 앞으로 3년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기업의 CEO는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CEO는 향후 몇 년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완만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열 상무

Tel. 02-2112-0062 E-mail. kwangryeolyi@kr.kpmg.com



믿음직한 승계 여정의 동반자 삼성KPMG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

최근 경제 민주화 및 공평과세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부의 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명성이 강화된 과세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 삼성KPMG는 2012년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을 설립해 국내외 상속 난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국내 상속세제 이슈와 그 문제점

상속과 기업승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권 보전과 자원 확보이다. 국내 상속의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농우바이오 사례를 짚어본다. 이 사례는 현 상속세제가 지닌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상황에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30% 할증으로 인해 실질 세부담은 무려 65% 수준이었고, 농업법인인 농우바이오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데다가, 마지막으로 상장주식은 물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현금이 아닌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으로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시가보다 할증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유족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

사 매각을 선택했지만, 기업승계는 창업주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임직원 모두의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근래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를 먼저 짚어보면, 사실 과거에는 법 테두리 밖에서 승계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희석됐다가 점차 과세정보 수집의 강화, 포괄과세 등 세법의 보완 과정에서 편법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이 현실화되면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또 다른 하나는 창업주들의 은퇴 시기가 되어 상속과 기업승계가 실제 이슈 된 부분이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해왔으나, 상속세율 인하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협업 시너지로 기업의 상속 난제를 해결하는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지난 2012년 삼정KPMG는 상속 이전에 가업승계 문제 해결이 필요함에 주목하고,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을 신설했다. 그 계기는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였다. 당시 이 센터를 통해 삼정KPMG는 중견기업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 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란 것을 인지했다. 특히 승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매각을 원하는 문의로 있었다. 결국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기업의 어려움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상속과 가업승계에 특화된 전문팀이 출범했다.

삼정KPMG의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은 실무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팀으로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부터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자산관리 및 재무자문,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관련 자문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와 경제 민주화 등에 대응하는 '지배구조개선팀' 등의 전문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한, 삼정KPMG의 세계 155개국의 KPMG 멤버 펌에 소속된 16만여 명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며, 세무본부에서 운영하는 TCoE(Tax Center of Excellence)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은 주식 물납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 현행 세법 아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보전하고 상속세 재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세무 전문가인 동시에 재무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특성을 살려 고객에게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가업승계, 최고의 동반자 될 것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튼튼한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중견·중소기업이 새로이 많이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의 기업들이 견고히 지속해 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원만한 기업의 승계는 그 핵심에 있다.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은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승

계와 관련한 세금 등의 문제로 더는 고민하지 않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로 거듭날 때까지,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파이팅!

삼정KPMG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의 서비스

▶ 가업승계 자문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 내지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일체의 세무 및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업승계 장·단기 전략수립 지원
- 가업승계 방안 실행지원
- 가업승계 목적 주식평가 업무
- 승계 재원 마련 자문

▶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세전략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전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
- 상속·증여세 재원마련 자문
- 상속·증여 관련 효율적 납세 전략 수립

▶ 상속·증여세 조사 대응 및 불복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대응과 조세불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지원
- 주식이동 세무조사 지원
- 상속·증여세 조세불복 자문
- 유권해석 질의 및 법령개정 지원

▶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사법회 회 제공에 대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감 증여세 신고
- 일감 유권해석 질의 및 법령개정 지원
- 일감 증여세 절세 방안 자문

▶ 개인자산관리 및 재무 자문

고액자산가의 소득, 자산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인 제세의 신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제세 절세 장·단기 계획수립 자문
- 개인 제세의 신고 및 사후관리 지원
- 자금출처조사 대응 지원
- 해외소재 자산 세무 자문
- 주식명의신탁 해소 자문



CONTACT US

정병수 상무(팀 리더)

Tel. 02-2112-7506 E-mail. bjong@kr.kpmg.com



고객 선호도 1위 기업, 동아오츠카

동아오츠카(주)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자회사로 일본의 大塚製藥(오츠카제약)과 자본과 기술을 합자해 1979년 창립된 건강음료전문기업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 철저한 품질관리로 정성을 다하는 동아오츠카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음료 시장의 다양화를 선도하며, 음료 업계부문 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를 10회 달성한 바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정성을 다하는 동아오츠카

동아오츠카(주)는 동아제약 그룹사로서 1971년 '오란씨'를 발매한 이후 1979년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 법인으로 발족해 동아 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87년에는 동아제약과 일본오츠카(大塚)제약과 자본, 기술 합작을 통해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식품업계의 유망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대표 브랜드 포카리스웨트를 비롯해 오로나민C, 데미소다, 오란씨, 나랑드사이다, 데자와 등 다양한 제품군을 이뤄 국내 대표 음료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오츠카는 고객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생각을 존중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하는 '고객 제일주의'를 모든 종업원의 마음에 심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건강 지향적 기능성 음료 시장을 개척해왔다. 무엇보다 좋은 제품은 우수한 생산시설과 이

를 다루는 사람들의 정성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원재료 선별부터 제조공정,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신판비에 의한 이화학 테스트 및 미생물 실험 등으로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물류체계의 확립과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양, 청주, 칠서공장에 최신 생산설비를 갖췄다. 이처럼 동아오츠카는 국내 음료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음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으로 식품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

동아오츠카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음료 부문 최다수상(8회)을 비롯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를 총 10회 차지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美시간대대학교의 국가품질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객만족도 평가모델로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을 측정·계량화한 지수이다.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는 한국산업의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말한다.

동아오츠카의 대표 브랜드는 1979년 순수국내자본과 기술로 탄생하여, 국내음료시장을 개척한 ‘오란씨’, 국민이온음료라 불리며 생활속 음료로 자리 잡은 ‘포카리스웨트’, 1991년 발매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데미소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민C’, 맛있는 제로칼로리사이다 ‘나랑드사이다’, 검은콩차 ‘블랙빈tea’ 등을 개발해 제품의 다양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1987년 시장에 출시된 이후 이온음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포카리스웨트는 생활속 ‘내 몸에 가까운 물’이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여타 스포츠음료와는 다른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CM송과 여배우 등용문이라 일컬어지는 TVCF로 포카리스웨트만의 톤앤매너를 지키고 있다. 특히 2015년도 포카리걸로 활동한 배우 김소현은 손예진의 계보를 잇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5년 초에 발매된 오로나민C는 탄산드링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드링크시장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분기 오로나민C 매출은 약 4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7% 성장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6개국에서 누적판매량 300억 병을 기록한 글로벌 브랜드로, 한국에서 7번째 신화를 쓰고 있는 셈이다.

고객에 받은 사랑 다시 사회에 환원하다!

동아오츠카는 매월 25일을 이온데이로 정해 사내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팀이 연탄배달, 주변 환경 미화,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장학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 축구용품을 후원하는 한편 장미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 꿈나무들과 함께 대표경기를 관람하고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야구, 농구, 마라톤 등 빅 스포츠 공식지원 외에도 핸드볼, 아이스하키, 복싱 등 비인기 종목과 홀트 장애인농구 등 장애인 스포츠에 후원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아오츠카는 온라인 SNS 홍보,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며, 나눔 실천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아오츠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더욱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소비자와 소통해 나갈 것이다.



1.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모델 배우 김소현
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음료 부문 1위로 선정돼, '업계 최다수치 10회'를 달성한 동아오츠카



브렉시트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Issue Monitor>에 담고 있다. 이번 <Market Reader>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Issue Monitor>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온 국민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지난 6월 24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로 결정됐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년여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금 가격 및 엔화 가치도 급등하며 세계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 향후 영국이 유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인지 등에 따라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즉 브렉쇼크(Brexshock)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은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사업 및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브렉시트와 한국의 금융시장

첫째, 브렉시트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직접 유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된다. 브렉시트 직후 한국의 증시 하락률은 일본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홍콩 및 대만에 비하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더해질 때마다 더 고조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한국의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브렉시트와 한국의 실물경제

둘째,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총 수출액 중 EU와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8%, 1.5%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13대 영국 주력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도 다소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유럽경기 둔화, 신흥국외환 위기,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및 한국의 수출 침체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브렉시트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

셋째, 브렉시트가 가져온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브렉시트 직후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진행했다. 6.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더욱이, 영국 진출 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관련된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

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은 특히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2년 내 EU와 재협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영국과 별도로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한-EU FTA의 교역조건 등을 재논의하는 등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브렉시트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더욱이, 영국 및 유럽의 규제가 변화하고, FTA 협상안을 마련하며, 각국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움직였다. 특히, 영국과 EU의 재협상 성공 여부와 협상 조건에 따라 파급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U의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인 탈퇴로 이어지거나, 신흥국 자본유출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경우 기업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한다.

환경이 변화하면 기업도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대응팀을 구축해야 한다.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분석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세제변화 및 환율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첫째, 관세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영국과 EU 간의 교역구조가 비관세에서 관세적용으로 무역환경이 극변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한-EU FTA의 교역조건 조정 및 한-영 FTA 추진 등의 중대한 대외정책 이슈에 당면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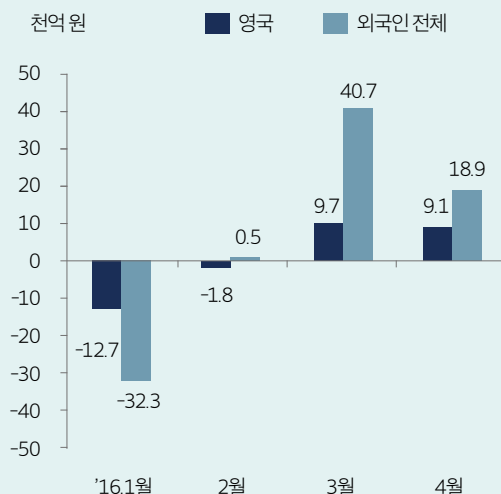
둘째, 부가가치세율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회원국으로서 EU의 부가세 규제를 받아 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부가가치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율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환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헷징(Hedging) 능력을 강화하여 환율이 급변동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유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징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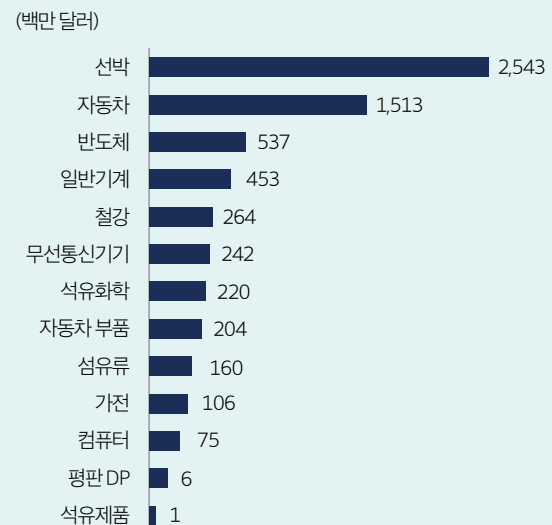
Tel. 02-2112-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국내 주식시장의 영국계 자금 유입 규모



Source: 금융감독원

2015 대영국 수출 13대 품목 현황



Source: 산업통상자원

보험비즈니스의 새로운 변화



B&F1
어경석 상무이사

AUDIT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다리보험 1,860억 원, 록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보험 65억 원, 그리고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다리보험 1조 원 등의 신체보험부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드론보험, 결혼식보험, 보이스피싱보험까지 다양한 위험의 이전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보험상품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8위 규모까지 성장해온 국내 보험 업계는 어느덧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작년 말 보험상품개발, 가격, 판매채널의 규제를 풀고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업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IFRS 4 2단계 도입이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고, 이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43개) 중 하나가 IFRS 4(보험계약)로서 보험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국가 간 상이한 보험회계 관행을 일시에 조정하기가 곤란하여 현행(1단계)은 대부분 각 국가의 관행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2020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기준서에서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수익인식기준 변경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크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미래 지급할 보험금을 부채로 기록하는 기본구조인데, IFRS 4 2단계 기준서가 이 두 가지(수익 인식과 보험부채 시가 평가) 모두를 중심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보험료수익 인식은 기존의 납입보험료를 받는 시점의 현금주의 방식 수익인식에서 저축성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현행보다 수익의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부채는 현재 시점에서 계약자가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과 비슷한 정도만 부채로 적립하면 되었다. 그러나 2단계 새로운 기준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하여 현재의 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개념으로 시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7% 이상의 확정고금리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현재 시점의 금리(2% 정도의 저금리)로 할인하니 미래 지급금액(보험부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마치 7%의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받은 금액에서 2% 정도의 운용수익을 내니 5% 정도의 여마진이 발생하고, 이를 보험부채의 증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이미 1998년에 도입한 호주의 경우도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변화와 보험회사들의 노력으로 오히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감독제도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 보험사들도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보험상품 분석, 계리 인프라 구축, 경영관리 변화 등에 대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보험비즈니스 변화의 시작이다.

중국에 밀리는 한국 게임산업, 위기를 기회로!



ICE2
염승훈 전무이사

AUDIT

한국 게임산업은 과거 콘텐츠 산업 성장·수출 역군이었으나 현재는 외국산 게임에 상당한 점유율 내주는 것은 물론, 주요 국내 게임업체들의 지분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하여 경영권 간섭까지 우려해야 하는 등 게임산업 전체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포켓몬 고’ 열풍까지 몰아치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초라해진 형국이다. 반면, 중국의 게임산업은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텐센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 온라인게임을 중국에 퍼블리싱하는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중국콘텐츠산업 육성정책과 자국 내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텐센트’는 2011년에 라이엇게임즈의 지분 전액을 취득하였으며 최근 핀란드 모바일 게임업체 ‘수퍼셀’까지 전격 인수하면서 정점에 올랐다.

한국의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과 비교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또 다른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의 게임 개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만 뒷받침된다면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수퍼셀’과 같은 회사도 나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투자유치나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산출을 위한 재무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 게임업체의 재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임업계의 회계 이슈 세 가지를 다뤄본다.

수익 총액과 순액 인식 어떻게 해야 할까?

모바일게임의 유통은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셔가 이를 배급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채널을 통해 게임유저에게 전달된다. 게임유저가 지불한 아이템 구매금액은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 수익금은 나누면 되지만 수익의 총액/순액 인식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퍼블리싱과 채널링은 홈페이지 및 서버를 구축하여 해당 게임을 연결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등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기업회계기준서 상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첫째, 거래당사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둘째, 가격결정권한을 보유하며 셋째, 게임유저로부터 수취할 금액

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기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주체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아이템 구매 시, 수익 인식 어떻게 해야 하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유저들은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게임아바타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게임에 참여한다. 게임아이템 중에는 게임유저의 사용시점에 소멸되는 일회성 아이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아이템 등으로 그 구성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아이템 구매 시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템 판매 이후 관련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게임유저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유지하고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하므로, 구매 시점에 일시에 수익 인식하지 않고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간주하여 아이템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부채 분류법

게임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메자닌 투자를 선호한다. 이때 발행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은 하나의 금융상품 안에 자본요소와 부채요소가 동시에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다. 전환상환우선주를 예로 들면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권과 상환우선주로 구분되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부채/자본요소를 분리해야 한다.

전환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결제 가능하며 그 비율이 확정되어 있으면 자본,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부채로 분류

상환우선주: 상환의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다면 자본, 보유자에게 있다면 부채로 분류

복합금융상품의 자본/부채요소의 분류 변경으로 인해 거액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둔갑하여 상장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기에 사전에 면밀한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가 강조된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FY16 Strategy I

Talk! 연결고리

이색삼정★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Samjo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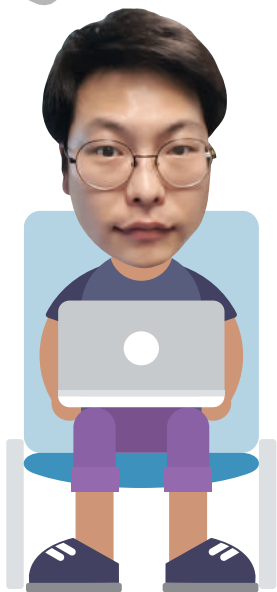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전태웅 Manager가 정회림 S.Analyst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준 동료이자,
든든한 조연자!

IM4 전태웅 Manager



칭찬주인공
Deal Advisory4
정회림 S.Analyst



안녕하세요, IM4 본부의 전태웅입니다.
이렇게 <Channel>을 통해 칭찬을 받고 또
칭찬하게 될 기회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주신 홍성준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주변에 도움을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누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지 고민하다 다른
Function, 본부, 직급, 학교를 추려보니 딱 한 명의 친구가 생각나서, 이번 기회를 빌려 정회림
S.Analyst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본부에서 감사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 절차에 집중한 나머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M&A 이슈 등에 대한 시각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바쁜 시즌 와중에 잠깐이나마 차를 마시는 시간이라도 가질 때, 정회림 S.Analyst는
제가 놓치고 지내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Advisory 하듯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법인 내부에서 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만약 고객의 입장으로 정회림 S.Analyst를 만난다면, 삼정KPMG의 조언자로서 큰 믿음과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정회림 S.Analyst는 1사번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정회림 S.Analyst는 2010년 입사는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삼정KPMG에 11사번으로 재입사했고, 중도에 잠시 투자금융회사에서
이직하여 현장 업무 후 2015년도에 다시 삼정KPMG로 재입사하여 사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본 시리즈로 복귀하는 맷 데이먼을 생각하며 <제이슨
본> 영화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회림 S.Analyst에게 지금 이 글을 쓴 오늘(7월 25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회림 S.Analyst에게 영화 <제이슨 본>을 추천합니다!’

<제이슨 본, Jason Bourne> 2016 / 액션, 스릴러 / 감독 폴 그린그래스 / 출연 맷 데이먼

<제이슨 본>은 자취를 숨기고 사라졌던 제이슨 본이 그의 과거를 둘러싼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추적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본 시리즈’를 이끌어 온 폴 그린그래스 감독과 맷 데이먼이 <본 얼티메이텀> 이후 9년 만에 다시 만나 화제를 모았다.

FY16 Strategy I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인재가 자산이다!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삼성 KPMG

FY16 삼성KPMG Strategy



- I.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II.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
 III. Quality Performance

삼성KPMG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FY16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Channel>에서는 삼성KPMG의 FY16 전략을 소개하고,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삼성KPMG의 No.1 전략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는 삼성KPMG의 모습도 함께 담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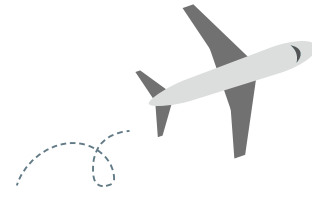
삼성KPMG는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내부인재 관리 육성 ▲우수인재 확보 & Inorganic Growth ▲소통 및 행복 증진을 세부 전략으로 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본부이동 제도인 '**New Challenge Program(NCP)**'으로 임직원에게 다양한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Global Opportunities**'를 통해 다양한 해외 파견 근무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S.Manager 승진자 해외 연수**', Junior를 위한 3년간 집중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 영어 학습 기회를 위한 '**EF 온라인 어학 스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272명 채용에 이어 올해는 300명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할 계획이며, **Function별 Director 이상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 Inorganic Growth를 계속해서 이뤄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KPMG

는 출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과 본부원 간의 '**Coaching Program**'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외에 타 본부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삼삼오오**'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찾아 뵈 때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부모님을 뵙니다**', 자녀의 학급에 간식을 제공하는 '**아빠&엄마가 간다**', 특별한 날 법인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리무진 서비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Family Day**' 등의 다양한 Benefit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임직원 간의 즐거운 소통의 기회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 공정한 보상 등으로 '인재를 키우는 최고의 법인, 삼성KPMG'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EP 6기 성적우수자,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다녀오다!



7월 14일, 삼성KPMG 본사 Purpose 회의실에서 ‘GEP 6기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GEP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성인 6명이, 2주간의 캠브리지 연수에 관한 생생한 스토리를 들려줬다. 이번 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에 한층 더 가까워진 GEP 성적 우수자들의 해외연수 후기를 들어보기 전에 법인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에 대해 소개한다.



GEP 6기 성적우수자와 김교태 CEO가 함께 한 단체사진

Junior를 위한 3년간 집중 인재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

삼성KPMG는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Junior(1~3년 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Global Elite Program(GEP)’은 삼성KPMG의 인재상인 투철한 윤리의식과 전문성, 글로벌 안목을 키우기 위한 ‘3년간의 집중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입사 이후 3년간 다양하고 체계적인 Learning & Development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제공돼, 실무 능력에서 지식, 스킬, 마인드까지 모든 면에서 Global Elite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GEP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성인에게 아주 특별한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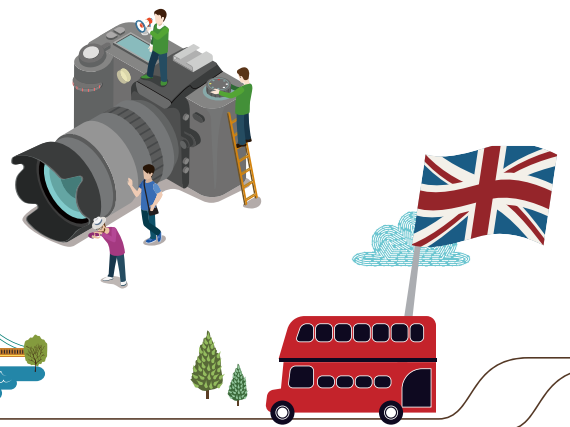
GEP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은?



▶ 평가 프로세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생활



1

1. Bath 투어를 통해 영국의 역사를 살펴본 행복했던 시간
2. 잉글랜드 남부 솔즈베리 평원의 스톤헨지(Stonehenge)에서 찰칵
3. 캠브리지의 EF School 선생님, 수강생들과 함께 촬영한 단체사진
4. 영국의 국회의사당 시계탑인 빅벤을 배경으로
5.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관람한 잊을 수 없던 감동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6. 마치 거대 쇼핑몰과도 흡사한 모습의 KPMG UK Office
7.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 UK Office의 카페테리아



2



3



4



5



6



7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삼정인

Audit Quality를 책임지는 대표강사 활동기

지난 6월 집중 Audit 직무교육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함)을 이룬 강사들의 활동 소감을 들어본다.



‘Back to basic’과 ‘업무성과를 이끄는 교육’을 모토로 6월 한 달 간 모든 Auditor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교육에 참석했고, 이들 뒤에는 삼정KPMG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Audit Quality의 기틀을 책임지는 80여 명의 대표강사가 있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다!

후배들을 교육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얻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 신인철 S.Senior, 조화수 Manager

후배들에 강조한 ‘Professional Skepticism을 가져라’는 앞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 더 강하게 저의 자침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일상 S.Manager

삼정의 가슴 벅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감사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MUS는 꼭 eAudit으로 돌려보세요.

- 문지호/강신목 S.Senior

삼정KPMG의 밝은 미래인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중수 S.Manager

회계사 인생은 대표강사를 하기 前과 後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사로서의 초심을 떠올리고, 열정을 되돌아 볼 수 있던 제 인생의 Milestone이었습니다.

- 정양기/김창신 S.Manager

대표강사 활동은 감사업무로 지쳐있던 저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선물이고, 최고의 시간입니다.

- 송성석 S.Manager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대표강사 활동은 L&D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이었고, 보람과 만족이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 이호철 S.Manager

설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 일상 회귀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 복잡하지만 잊고 싶지 않은 다양한 감정을 준 대표강사 파견 일정은 제 인생의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 최연택 Manager

이제 Read 하지 않고 Lead 할 수 있어요!

L&D에서 준비한 강의스킬 교육과 강의 경험으로 더이상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 김태욱 S.Manager

여러 사람 앞에 나서기 힘든 성격을 극복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 원일/임성수 Manager

· 2016년 상반기 대표강사

B&F1 나원찬, B&F2 신인철, 전수진, B&F3 강신목, 정중수, CM 임성수, 박기현, 조일상, ICE1 도의연, ICE2 문지호, 함철규, 최연택, IM1 나재광, 원일, IM2 이호철, 정양기, 서창원, IM3 박경호, 김창신, IM4 조화수, 지현수, IGH 장재준, 김태욱, JP 송성석, L&D 조상용, 손원식, 김응주

| 솔직담백! ‘영국 캠브리지 해외연수’ 스토리

삼정KPMG는 GEP 성적우수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법인에 대한 자부심과 로열티를 형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핵심인재로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영국 캠브리지로 2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내 삶의 새로운 활력소!

강신목 S.Senior(B&F3)



캠브리지에서 2주간의 생활은 법인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 동기들과의 가슴 벅찬 추억이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L&D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력도 개발하고 GEP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해외연수 기회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수 기간 UK Office 방문을 통해 KPMG는 누구나 노력한다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해 줄 회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GEP 성적우수자에 선정되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김교태 CEO님 및 본부장님 이하 저희 본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캠브리지 어학연수 강력 추천!

구수정 S.Senior(ICE2)

예전부터 제일 가보고 싶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이번 GEP를 통해 갈 기회가 생겨, 설렘을 안고 출국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반기를 뛰고 있네요~! 연수 동안 홈스테이로 영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동기들과의 동료애를 통해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주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쉽네요. 다음 GEP 후배들에게 영국 캠브리지 어학연수를 강추합니다!!!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야기한 시간

박선영 S.Analyst(Deal Advisory 3)



입사 당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GEP 해외연수 기회를 얻게 돼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연수 중 캠브리지 EF에서 이수한 강의와 UK Office 방문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GEP 해외연수는 누구나 성실히 3년간의 과정을 수행하면 잡을 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셔서 법인에서 지원하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PMG 위상을 느낀 값진 경험

양동빈 S.Senior(Global Tax)



영국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F School의 영어 교육과정 또한 유익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수강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아울러 UK Office 방문은 다시 한 번 KPMG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GEP 동기들과 쌓은 유대와 교제는 앞으로의 KPMG Career에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후 선발될 GEP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에서의 지난 4년을 되돌아 본 소중한 시간

이상민 S.Senior(IM2)



영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EU에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이뤄졌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와는 정반대로 영국은 Leave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영어는 쓰면 쓸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던 찰나 벌써 집에 가야 할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비행기에 오르면서 평소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는 법인에서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동기들과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미래의 후배들이 영어도 배우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GEP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의 행운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상상이상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시간들

채두현 S.Senior(CM)

영국에 파견 중인 신영아 이사님과 윤여준 매니저님의 친절한 안내로, UK Office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KPMG UK Office는 큰 건물 규모만큼이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직원 편의를 위한 공간 등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의 취향에 따라 메뉴를 선정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때론 축구경기를 단체로 관전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휴게 장소를 마련해 준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2주가 2초로 느껴질 정도로 GEP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저에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의 생활은 상상이상으로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했구요. 다음 GEP 7기에게도 더욱 아름다운 추억과 경험들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삼정인! 삼정KPMG 외국인 직원을 만나다

세계인의 축제 '리우 올림픽'이 8월 6일 개막했다.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그 속에서 세계인이 화합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삼정KPMG에도 국적은 다르지만 삼정인으로서 맹활약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있다. 올림픽 경기만큼이나 짜릿하고 열정적인 이들과 솔직담백 토크를 나눠봤다.



Nishitani Naohiro
S.Manager (JP)

Yagita Izumi
차장 (JP)

Cao, Liang
상무이사 (DPP)

Alloway, Kevin
Senior (TP)



니하오! 곤니찌와! 헬로!

Liang: 니하오! 삼성KPMG와의 인연은 2008년 파견 근무를 통해서 처음 맺게 됐어요. 이후 2011년부터는 삼성KPMG DPP본부에 소속돼 현재 Capital Markets Group의 파트너로 근무하며, 미국 상장 고객의 감사업무 리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China Practice 담당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삼성KPMG에 입사한 이유는 평생 동반자인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하. 남편과는 미국에서 파견 근무하다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Nishitani: 저 역시도 아내가 한국인이예요. 그리고 저는 재일교포 4세입니다. 재일교포이지만 한국어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워, 일본 KPMG에서 근무하다 2007년에 관두고 연세여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후 일본 KPMG에 재입사했고 LG Display, NHN PlayArt 등 한국 고객사를 담당하다 2014년 8월부터 삼성KPMG 일본사업본부에서 파견 근무 중입니다.

Yagita: 곤니찌와! 저는 일본에서 9년간 회사 생활 하다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됐어요. 당시 한국인들과 업무상 통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이 일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했고,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면 어떨까?'란 생각에 한국외대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지요. 졸업 이후에는 한국어도 배웠으니 새롭게 한국에서 일해보자, 결심했고 운 좋게 2004년 삼성KPMG에 입사하게 됐어요.

Kevin: 미국 시애틀에서 온 케빈이예요. 3년 전 미국 KPMG에서 일을 시작해 삼성KPMG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됐어요. 현재 TP본부에서 Transfer Pricing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매주 월, 목요일에는 서울대 야간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주 조~금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나라, 한국

Kevin: 한국은 과거에 서강대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어 친근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교환학생 시절 만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 서울대 인근에 좋은 집을 얻었어요. 또,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잘 적응하고 있어요.

Liang: 저는 동양문화원에서 왔기에 잘 적응했지만, 초반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Yes'를 말할 때 '응'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는 'en'을 사용해요. 한 번은 본부장님을 모시고 회의하다 본부장님이 제게 무언가를 여쭙았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en'으로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본부장님

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지만, 한국에서 쓰는 '응'은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Yagita: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유학 시절, 버스나 택시를 타면 엉뚱한 곳에 도착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해냈던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하. 그래도 한국은 온 후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에, 저 역시도 닦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회사, 집을 반복하는 조용한 삶을 살았거든요.

Nishitani: 무엇보다 한국인은 업무 판단이 신속해요. 한국의 경우 업무 진행 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진행하는 편인데, 반대로 일본은 한국보다 시간을 두고 선택하는 스타일이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덕분에 업무가 빠르게 진행돼 좋은 것 같아요.

삼성KPMG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꿈꾸다

Yagita: 삼성인으로 지낸 지 햇수로 12년이 됐네요.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 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요. 이러한 생활이 가능한 건, 동료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또 삼성KPMG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처럼 저도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고 싶어요.

Liang: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나 삼성KPMG에 일한다 할 때 받는 좋은 시선들은 행여 우리가 편법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조직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의 마음가짐으로, 미국 상장회사 대상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사업 간의 'Bridge'가 되고 싶습니다.

Kevin: 미국에서는 미국 관련 업무만 맡아오다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협업 중인데, 한국 동료들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글로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아요. 삼성KPMG에 있는 동안 동료들 옆에서 많이 배우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가고 싶어요.

Nishitani: 저는 삼성KPMG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여, 향후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KPMG에서 Global Korea Practice 파트너가 되는 게 현재 최종 목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부, 직급에 관계없이 많은 삼성인들과 교류하며 친해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속스럽지만 육아에 힘쓰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란 말 남기고 싶네요. 하하.



자전거 라이더 JP본부 이지형 S.Senior

“일상 벗어나 즐기는 라이딩, 즐거움 그 자체!”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이다.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취미로 즐기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 산 따라 물 따라 페달을 밟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는 삼정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이지형 S.Senior와 진정한 라이딩의 세계에 들어가본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자전거 사랑’

“자전거를 타기 전엔 운동의 ‘운’자도 몰랐어요. 흔히들 가는 헬스장 한 번 간 적 없었죠. 그러다 저보다 자전거 세계에 일찍 눈 뜬 입사 동기이자 절친인 신우식 S.Senior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해보자는 권유로 지금까지 타고 있네요.”

입사 3년 차 되던 해, 특별한 취미 하나 없던 그는 그렇게 라이딩의 세계에 입문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기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퇴근 후 저녁, 주말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그는 라이딩을 즐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라이딩 하다 보니 어느새 체력이 부쩍 좋아진 걸 느꼈어요. 사실 그간 운동해본 적 없으니 운동 후 개운한 기분도 몰랐었죠. 한데, 허벅지가 뭉어질 것 같고, 숨이 차올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후의 그 상쾌함이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경치 감상하며 라이딩 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전거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그는 법인 내 자전거 동호회, 또 외부 직장인 동호회에 소속되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라이딩 시작 3개월 만에 국토종주, 그리고 대회까지

그가 꼽는 자전거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전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라이딩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국토종주에 나섰다. “라이딩도 익숙해졌고 슬슬 서울 한강의 풍경이 지루해지던 시기였어요. 자

전거 탄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국토종주를 신우식 S.Senior와 함께 해보기로 결심했죠. 사실 국토종주 기념 메달 욕심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경기도 양평 코스로 국토종주 계획을 세운 후, 당일 신우식 S.Senior와 함께 자전거를 갖고 부산을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국토종주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처음 나선 국토종주인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정을 넉넉히 두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주변 경치도 즐기며 탔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라이딩을 했었는데, 시골길은 유독 빛이 없어 너무 캄캄해 위험했지만 함께하는 신 S.Senior가 있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라이딩을 즐겼어요.”

국토종주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국토종주 기념 메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메달 욕심이 있어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에, 막상 국토종주를 하고 나니 메달은 큰 의미가 아니더라 그저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국토종주에 힘입어 그는 2015년에는 ‘화천 DMZ 랠리’, ‘오크밸리 그란폰도’ 전국 자전거 대회에 출전해 좋은 추억도 남겼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닮은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며 모험을 즐기게 된 이지형 S.Senior. 그가 올해 준비한 계획은 ‘백두대간 종주’, 이번만큼은 오로지 혼자서 완주할 계획이란다. “미시령, 대관령 등 산 능선을 타고 가야 하기에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약 1,500Km로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오랜 시간 일정을 낼 수 없어 코스를 나눠 여러 번에 걸쳐 도전할 계획이에요. 이번엔 혼자 완주할 계획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전에 속초로 혼자 라이딩 하다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나 다시 돌아온 허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하.”

혼자 타는 것만큼이나, 함께 타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을 터. 한 번은 동호회원들과 경기 외곽 코스 라이딩에 나섰는데,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옆에서 힘을 준 회원들이 있어 완주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무엇이든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업무도 혼자서 아닌 본부원들과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할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해낸 것이 아닌 ‘우리’가 해낸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많은 감정들과 또 힐링된 마음들이 업무에서도 잘 발휘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니저 진급을 앞둔 만큼 라이딩 하는 멤버들을 잘 이끌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것으로 본부 내 팀 생활을 간접경험 하고 싶어요.”



삼정 KPMG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함께 찰카!



전라북도 라이딩 중 잠시 포즈를 취한 이지형 S.Senior



해이리 라이딩에 나선 삼정 KPMG 자전거 동호회

이어 그는 라이딩하며 만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또 페달을 세게 밟아 부지런히 움직이면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라이딩은 우리의 삶과 닮았다며, 초보자도 대환영하는 법인의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라이딩 즐기는 삼정인이 많아지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이제 곧 백두대간 종주에 나설 이지형 S.Senior, 혼자 도전에 나선 만큼 철저한 준비 끝에 꼭 성공적인 완주를 이뤄낼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이지형 S.Senior가 전하는 자전거 입문자에 전하는 조언

- ① **안전제일.** 헬멧,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라이딩을 즐기세요.
- ② **목표 설정.** 얼마나 먼 거리를 갈 것인지, 어떤 속도로 라이딩 할 것인지 등 그날의 컨디션의 맞게 라이딩 목표를 정해 무리한 라이딩은 피하세요.
- ③ **과정 즐기기.**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며 라이딩 하면 지루하지 않은 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추천해주시는 삼정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의 BD&Markets 홍보팀 김수지 대리 sujikim@kr.kpmg.com/ 02-2112-7567

Our Higher Purpos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지난 7월 7일, Purpose Agent 3기를 대상으로 '2016 KPMG Story Workshop'이 진행됐다. 빌딩 숲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인천 무의도에서 펼쳐진 KPMG Story Journey 속으로 들어가 본다.



KPMG Story 이끌 'Purpose Agent 3기' 선발

지난 7월, KPMG Story를 이끌어 갈 'Purpose Agent 3기'가 선발됐다. Purpose Agent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Manager 직급 이하의 본부원들로 구성되며, PPC Officer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최종 선발한다. 올해 선발된 Purpose Agent 3기는 총 60명이며, 1기(2014년)와 2기(2015년) Agent들과 함께 본부의 Purpose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각 본부 PPC Officer와 함께 본부원들에게 KPMG Story를 명확히 알리고, Purpose와 Value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변화관리 역할자(Change Agent)를 맡아 활동한다. KPMG Story를 이끌어 든든한 지원군 Purpose Agent 3기를 '2016 KPMG Story Workshop'에서 만나본다.

Agent 3기의 'Purpose Story'는?

'2016 KPMG Story Workshop'은 서로 다른 본부의 Agent와 한 조가 되어 팀워크를 다지는 'Story Activity'로 문을 열었다. 이 세션에서 Agent들은 KPMG의 7가지 핵심가치(Value) 의미를 직접 도구와 몸으로 표현하고, 게임을 통해 알아갔다. 이를 통해 Agent들은 활자

속에 떠다니던 술선수범, 존중, 협업, 소통, 통찰력, 공헌, 정직성실의 7Values를 마음 깊이 경험하며 내재화했다.

KPMG 7Values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Story Activity'



1.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림의 순서를 맞춰본다.
2. Work together. 동료들과 '협업'하여 미션을 수행한다.
3. Lead by example.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두 참여하여 구조물을 완성한다.
4.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명확한 목표'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동차를 제작해본다.

오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KPMG Story의 각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Agent들은 본인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며, 각자의 Purpose Story를 동료들과 공유했다. 스토리텔링은 Purpose를 내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Agent들은 업무 속에서 KPMG의 Purpose인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던(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이야기를 나누며 전문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감사본부 주니어 회계사들이 자신의 업무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적절한 감사절차와 전문가적 판단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DPP 양유정 Manager



Purpose 스토리텔링 모습, 맨 좌측부터 DPP 양유정 Manager / ITC 박용진 S.Consultant / Domestic Tax2 정주현 S.Senior.

Agent가 그려본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삼정KPMG가 2020년을 향해 그려본 Vision은 ‘The Clear Choice’이다. 스토리텔링 세션을 마친 후에는 Photo Contest 시간을 가져, 다가올 2020년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려갈 비전의 모습을 그려봤다.

Agent들은 ‘The Clear Choice’의 모습을 Client, People, Public의 3가지로 나눠 각자의 방식으로 비전을 사진으로 담았다. 먼저 Client 측면에서는 ‘건강한 성장’을, People 측면에서는 ‘행복한 일터’를, Public 측면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삼정KPMG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아 ‘The Clear Choice’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본부별 Purpose 활동으로 우리만의 KPMG Story 만들어 갈 것

마지막 세션에서는 본부별 Purpose Action Plan을 공유하고 세부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본부에서 수행할 단계별 계획을 타 본부의 Agent들과 공유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상호 반영하는 시간을 가

Agent 3기가 표현한 삼정KPMG ‘Vision 2020’



1. 피아노, 피리, 바이올린, 노래가 모두 어우러져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듯,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로 배려하고, 우리의 삶과 일의 터전인 사회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2.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이룬 후의 느낌을 표현했다.
3. KPMG와 함께 일하는 고객의 생각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변화시키겠다.

졌다. Agent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주니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Purpose Agent들은 KPMG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본부 내 활동을 이끌 원동력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2016 KPMG Story Workshop’에 참여로 법인의 비전과 KPMG Story를 내재화한 Purpose Agent3기는 향후 본부별 다양한 Purpose 활동으로 본부 구성원들이 KPMG Story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본부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삼정KPMG의 Purpose와 Vision을 전달하는 Agent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Purpose 활동을 논의하는 Purpose Agent들의 모습.

폴란드 Korea Desk 황인제 S.Manager

유럽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동유럽의 보석, 폴란드

폴란드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폴란드인에겐 아쉽겠지만, 한국에 최초의 월드컵 승리를 안겨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승부의 세계를 벗어나 한국과 폴란드는 꽤 친밀한 나라이다. 과거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며, 또 현재는 각국의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활발한 교역국이다. 이외에도 폴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황인제 S.Manager가 들려준다.

“한국의 역사, 폴란드와 닮았다.”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피아노의 시인 ‘쇼팽’, 노벨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여성 과학자 ‘퀴리부인’, 평화의 사도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애플의 두뇌로 평가받는 ‘스티브 워즈니악’,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유명 인사란 공통점 외에도 아우슈비츠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르샤바로 알려진 폴란드인(또는 폴란드계 이민자)이라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흑독한 시련에도 민족

의 정통성을 곳곳이 지켜온 한국의 역사가 모국 폴란드와 닮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강대국 독일, 러시아 등의 틈바구니에서도, 폴란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폴란드 민족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크고, EU 국가 중 여덟 번째로 큰 경제 국가, EU 의회에 5번째로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국가 등 이는 현재의 폴란드를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의 전경



시장경제 체제 전환 후 이뤄낸 성장

공산주의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는 1989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822억 달러였던 국내총생산(GDP)은 5,466억 달러(2014년 기준)로 7배 가까이 뛰었고,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과 서유럽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동유럽의 보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면적은 남한의 3배 정도로 EU소속 국가 27개국 중에서는 6번째로 큰 나라(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 핀란드 다음)입니다. 폴란드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폴'이 평평한의 의미를 '랜드'가 땅의 의미를 가짐), 전 국토의 90%가 해발 300M 이하로 대부분의 국토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대한 평야를 직선으로 뺀 도로는 유럽 내 어느 국가 보다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1차선은 시속 200Km를 넘게 달리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약 3천 8백만 명 정도로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많은 인구와 높은 교육 수준 및 낮은 인건비 등은 폴란드가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 국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폴란드의 시간당 인건비(급여, 고용인 지급 사회보장비 포함)는 시간당 8.4 EUR로 유로존 평균 29.2 EUR의 3배 이상 낮음

한국 기업 성공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폴란드 Korea Desk

폴란드 KPMG는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폴란드 경제 성장에 걸맞게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약 1,300명의 전문인력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KPMG는 7개 지역에 사무실(바르샤바, 브로츠와프, 포즈난, 그단스크, 카토비체, 크라코프, 로츠)이 있으며, 수도인 바르샤바에 본사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한국공장이 위치한 브로츠와프에 Korea Desk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제개혁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기대했으며, 한국 기업은 이에 상응하여 현지 진출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폴란드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대상국이고, 한국에게도 폴란드는 슬로바키아에 이은 동유럽 2위의 교역국입니다. 폴란드는 2015년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국 중 12위를 기록(유럽국가 기준으로는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많은 흑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Korea Desk는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재무와 관련된 이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감사와 세무컨설팅으로 EU기금 및 폴란드 정부로부터의 세제 혜택 자문, 법인세, 부가세, 이전가격세제, 관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Compliance, Consulting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은행 및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 정권의 정책으로부터 한국 기업들의 잠재적인 세무 Risk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는 KPMG의 Purpose입니다. 폴란드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세무이슈 발굴 및 전달, 적시성 있는 이슈 해결, 고객의 Needs에 맞는 통합된 KPMG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ONTACT US

폴란드 Korea Desk 황인제 S.Manager
Tel. +48713704961 E-mail. ehwang@kpmg.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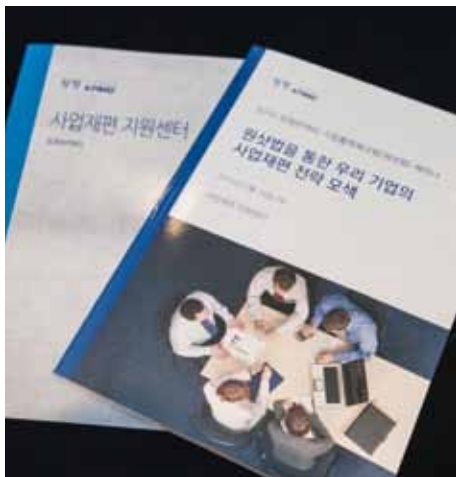


1. 고객사와 함께한 회식자리, 2. 폴란드 KPMG 본사 바르샤바 Office 모습, 3. 비눗방울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브로츠와프 광장

SPECIAL NEWS

원샷법을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 모색

‘2016 삼성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4일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삼성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 8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원샷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의 제도적 이해와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삼성KPMG 김교태 CEO는 “이 자리를 통해 기업활력제고법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재편의 주요 절차 등 효과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의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원활한 사업재편 위한 사회 시스템 인프라 마련해야

기업들은 국내 여건, 기업 상황,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 실무 요령’을 주제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홍보팀장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기업들의 원샷법 주요 작성 방안 및 기업 입장에서 주의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 팀장은 “일본은 1999년부터 원샷법을 쓰고 있으며, 5년 한시로 시작했다가 현재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원샷법을 통해 일본 기업들은 자금 및 고용지원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며, 원샷법이 국내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 · 사업재편 전문가인 삼성KPMG 이재현 전무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업재편 성공 사례 및 국가별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샷법 적용 시 사점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이 전무는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산업전망과 환경 변화, 경쟁 및 역학관계 등에 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업재편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업재편 방향성에 대해 사업재편 주체와 정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인식도 공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책 증대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사회 시스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실업대책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시장의 탄력성 제고와 신규 미래 산업 개발지원 등 국가 산업구조재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재편 단계별 철저한 대응 전략 필요

사업재편 세무자문 전문가 삼성KPMG 김정 상무는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정책을 분석해 기업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제언했다.

구조조정 인수합병 전문가 삼성KPMG 윤창규 전무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 고려해야 할 주요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사업재편 과정을 사전검토, 신청서접수, 사업재편 실행(합병·분할), 사후관리 등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무는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인재 이탈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분할과 합병

등 사업재편 이후 성공적 사업안착과 성과창출을 위해 선제적 통합관리(PMI)에 착수해야 한다”며 “PMI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장 신경섭 대표는 “기업들의 효과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지속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이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M&A, 지배구조, 전략수립, 회계 및 세무자문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에서부터 사업재편 이후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 Contact: 이재현 전무 jaehyeonlee@kr.kpmg.com



MONTHLY NEWS

『제1회 ACI Peer Exchange』 개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는 지난 7월 7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US SEC 상장그룹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회 ACI Peer Exchange'를 개최했다. 이번 ACI Peer Exchange에서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 SEC 상장 기업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회계감독상 유의 사항과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국내 감사위원회 제도의 근원적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며 건설적 대안을 모색했다.

* Contact: 김유경 상무 youkyoungkim@kr.kpmg.com



삼정KPMG SIC, 스타트업의 성장 돕는 『Growth Readiness Index』 가이드북 발간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SIC)는 『Growth Readiness Index』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KPMG 글로벌 멤버 펌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분야 6가지(재무, 고객, 인재, IT, Governance, 해외진출)를 정의하고, 분야별로 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을 총 52가지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한 진단 툴인 'Growth Readiness Index(GRI)'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 Contact: SIC 윤권현 상무 kyoona@kr.kpmg.com

삼정KPMG,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MOU 체결

삼정KPMG는 7월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협약식을 가졌다. 삼정KPMG 외에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9개 회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삼정KPMG는 의료원 창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문 및 사업화 과정 전반을 협력할 예정이며, 창업역량 발굴 및 기업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삼정KPMG 헬스케어,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 번역 발간



삼정KPMG 헬스케어는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를 번역 발간했다. 이 책은 KPMG 글로벌 헬스케어부문 대표 마크 브릿넬이 지난 6년간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수백 개의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으며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25개 국가별로 보건의료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이 책에는 마크 브릿넬의 인류를 향한 애정부터 개인적인 암 투병생활까지 보건의료제도의 공급자이자 지불자로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잘 녹아 있으며, 세계 보건의료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 Contact: 헬스케어 박경수 이사 kyungsoopark@kr.kpmg.com



사랑나눔 삼정KPMG, 청소년 위한 '꿈·진로 및 경제교육' 재능기부 활동 전개



지난 7월 14일 삼정KPMG는 '삼정KPMG 꿈을 Dream Project'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꿈·진로 및 경제교육'에 관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서울 강남구 대왕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개된 이번 재능기부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꿈과 진로에 관한 강연'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영 및 경제학을 체험하는 '경제교육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회계사

가 하는 일과 역할 등 학생들에게 생소한 회계사란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정KPMG의 이번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지난 2월에 체결한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바탕으로 전개됐으며, 앞으로도 삼정KPMG는 '꿈·진로 및 경제교육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미니 인터뷰

청소년 위한 재능기부에 참여한 삼정인

① 재능기부에 참여한 계기와 강연 내용 ② 참여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조장균 상무이사(Deal Advisory 1)

①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할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청소년이 가져야 할 꿈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말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에 잠시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② 재능기부로 봉사를 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기회라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보다 알차게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좋은 기회를 본부원에게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저도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이아령 Consultant(BCS-CCS)

① 몇 번을 고민하다 모교인 '대왕중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줄 좋은 기회라 여겨 참여했습니다. 일원본동(대왕중학교 소재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동네 언니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강연 컨셉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컨설턴트가 되고자 다짐하고, 노력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인생에서 정해진 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미국으로 편입한 경험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② '꿈을 Dream Project'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쓰던 노트도 찾아보고, 입사 초기에 들고 다니던 메모장에 써놓은 다짐도 되새겨 보며 잠시 잊고 지낸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강조한 것처럼, 저 역시도 다시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CCS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KPMG

today for tomorrow

삼성 KPMG의 내일을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